

연변, 참신함으로 여름철 경제에 활력 주입

– 연변 문화관광 브랜드 영향력과 호감도 일층 향상

올여름, 연변의 문화관광 시장은 면모를 일신하고 참신한 관광 코스를 꾸준히 내놓았으며 '청량 소비' 모식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야간경제가 활기를 띠었다... 다양하고 새로운 오락 방식, 정경과 제품은 문화오락관광의 새로운 열풍을 촉진하고 여름철 경제를 자극해 활기를 꾸준히 분출시키면서 연변 문화관광 브랜드의 영향력과 호감도를 일층 향상시켰다.

2024년 초, 연변은 '모식 탈바꿈·인기 집중' 새 관광오락 모식 출시 계획을 가동하고 문화관광 소비 열점과 연변 관광 매력 포인트를 촉발하여 연변 특색, 변경 정취를 구비한 문화관광의 새로운 형태, 정경, 오락 방식을 다그쳐 형성하고 소비 '새 정경'을 구축했으며 '새 형상'을 구현하고 '새 IP'를 부각시켰다. 또한 '식사, 주거,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전 산업사를 관통하는 데 모를 박고 문화관광 신질생산력을 육성, 발전시켰다. 한편 '미식 감별', '문화오락 아이템', '레저스포츠', '연학관광', '야간경제' 등 새로운 관광 방식을 힘써 발전시켜 도시의 멋과 맛을 살리고 소비의 새 활기를 불러일으켰다.

여름철에 들어선 이후 연변은 전국의 대학생들을 초청해 연변을 체험하는 데 속박, 관광, 촬영 등 편리를 도모해주어 젊은층과의 거리를 좁히고 온라인 출판을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여름철 피서 초대장'을 발송하고 생태, 변경, 미식, 민속, 흥색, 축제, 축구를 담체로 연변 관광 코스를 출시하여 독특한 문화관광 코스를 종류별로 펼쳐보였다.

연변은 또 연길 직행로 선을 개통한 울리자보스도크, 유방, 장사 등 도시에서 연길을 흥보했는데 현장에서 가장 신선한 연변 특산을 맛보고 공연자와 근거리에서 접촉하는 물입식, 경식 흥보 방식으로 현지 대중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가져다주었다. 한편 무형문화 장터, 미식 선정, 필수 방문지 선정, 커피축제, 맥주축제, 캠핑축제, 살수축제 등 활동을 개최해 관광객들의 체험감을 풍부히 했으며 고속철 세트 탑승권을 출시하고 테마 공공버스를 개설했다. 문화관광 주제를 둘러싸고 펼쳐진 이런 활동은 곳곳에서 연변의 성의와 독창성을 구현했다.

연변의 문화관광 제품은 크게 생태, 민속, 흥색, 빙설, 미식 등 류형으로 나뉜다. 전통적인 관광, 체험의 토대에서 연변은 새로운 경경을 구축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으며 새로운 형상을 전시하여 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켰다.



▲ 중국 현역 관광산업 발전 잠재력 100 강에 입선된 안도현의 향촌마을

올 여름철, 연변에서 전통적인 레저 피서관광이 여전히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간 외에 '공연 + 관광', '여행활동 + 관광', '축구 + 관광', '미식 + 관광', '변경 + 관광' 등 새로운 방식과 고품질 봉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중요한 원인으로 되었다. 올 여름철 레저객수는 지난 7월 1일 시작된 가운데 8월 15일까지 연변 민용 항공과 철도는 루체로 228만 8,000명의 관광객을 실어나르면서 승객 류동량이 꾸준히 고수준의 운행을 유지했다.

연변가무단의 '진달래 음악 시즌'은 4월 29일 첫 공연을 시작한 이후 현

년해 동기 대비 49.44% 증가한 셈이다. 여름방학 기간 도문통상구는 매일 3,100명 가량의 관광객을 맞았다.

여러 풍경구는 '관광+' 융합력을 발휘해 관광시장이 활기로 넘치게 했다. 중국조선족민족원은 '전통 민속 + 뮤직 음악'을 주제로 여름 기간 2만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다. 비암산온천옛마을은 '건강양생 + 물놀이'를 주제로 일평균 1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았는데 그중에서 해외관광객이 40%에 달했다. 량전백세스포츠레저풍경구는 '스포츠 + 휴가'를 주제로 일평균 2,000명의 관광객을 접대하고 화룡시 관광객은 '홍색 + 전학관광'을 주제로 일평균 2,000명을 초과하는 관광객을 맞았다. 안도 내두산촌은 '전원 + 산소에 심취'를 주제로 일평균 3,500여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는데 남방 관광객이 주를 이루었다. 연변은 새로운 코스로 관광객들에게 새 에너지를 부여하고 차별화된 수요로 관광에 새로운 내포를 부여했다.

연변 IP는 민속, 미식을 토대로 식사, 주거, 출행, 관광, 쇼핑, 오락 등 면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몇 년간 커피, 캠핑, 야간경제, G331번 경로 등 새로운 IP, 새로운 형상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최근 2년간 연길시의 커피숍은 500여개로부터 1,000여개로 증가했으며 커피업종 종사자들은 현지 특산과 민속 요소를 커피 제품과 포장에 녹여내 독특한 커피 제품을 출시하여 색다른 커피문화를 형성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연변의 향촌 캠핑장은 50 개, 캠핑용 텐트는 974 개로 최대 2만 2,800명의 캠핑객을 접대할 수 있다. 근년에는 커피, 불고기, 영화, 스포츠 등 음식을 주제로 하는 캠핑장이 수두룩이 증가했다.

연변 IP는 민속, 미식을

재개장 관객이 5,000여명에 달하고 연길시무형문화 중심의 '사계절은 노래와 같네' 공연은 5.1절 련휴 기간부터 현재까지 근 1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맞았으며 연길공룡왕국의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 공연은 여름철 들어 5만명을 초과하는 관객이 입장해 관람했다. 각 현, 시 문화단위, 민간단체는 잇달아 플래시몹 공연을 펼치고 기차역, 상가, 사회구역 등 장소에서 민속 가무를 선보이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여름철의 문화 깨끗이를 선사했다.

훈춘 방천, 도문 국문통상구 등 변경 관광 시장은 새롭게 단장되고 전망대, 필수방문지, 커피숍 등 봉사시설이 갑수록 보완되고 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방천풍경구는 연 117만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는데 이는 지

전 주 각 현, 시의 '야간 쇼핑, 야간 식사, 야간 수영'을 대표로 하는 '야간경제' 또한 문화관광 열기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여름철 피서 새 모식을 적잖게 실현했다.

연길에서 컨테이너로 개조한 건물이 즐비한 불야성의 길거리 풍경, 부르하통하의 야경과 왕홍벽의 랜드마크 경관을 감상하고 돈화루정산에서 렌꽃과 밭해호공원의 야경을 감상한다. 안도현 명월진과 송강진의 야시장, 미식거리에서 음식을 맛보고 장흥하 강변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장백산문화박람관에서 문예공연을 관람하고 내두산촌에서 캠핑을 즐기며 대천하에서 야간 표류의 매력을 느끼고 대회대에서 저녁 산보를 하며 휘황찬란한 '야간' 폭포와 불야성의 장관을 체험한다... 야간 문화관광의 새 형태, 새 경경이 갈수록 풍부해지면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연변의 최신 IP로 부상한 가장 아름다운 경로로인 G331은 안도현, 화룡시, 룽정시, 도문시와 훈춘시를 경유한다. 연변은 국내 자가용 관광 애호가들을 초청해 자가용 관광 방식으로 연변 특색을 구비한 정품 관광 제품을 홍보하면서 다양한 관광객들의 개성화 수요를 충족시킨 동시에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변장을 달고 있다.

최근년간 '여름철 경제'의 성장은 우리 나라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수를 촉진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데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연변은 기회를 틀어쥐고 온라인의 유리한 흐름을 타고 관광객들의 열정을 만족한 채 우대 정책을 꾸준히 출시시키고 더 많은 참신한 놀거리로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문화관광 류량의 '보존량'으로의 전환을 일층 주동으로써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다.

/ 중앙라지오텔레비죤방송넷



▲ 돈화시 밭해호공원 일각

토대로 식사, 주거, 출행, 관광, 쇼핑, 오락 등 면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몇 년간 커피, 캠핑, 야간경제, G331번 경로로 등 새로운 IP, 새로운 형상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최근 2년간 연길시의 커피숍은 500여개로부터 1,000여개로 증가했으며 커피업종 종사자들은 현지 특산과 민속 요소를 커피 제품과 포장에 녹여내 독특한 커피 제품을 출시하여 색다른 커피문화를 형성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연변의 향촌 캠핑장은 50 개, 캠핑용 텐트는 974 개로 최대 2만 2,800명의 캠핑객을 접대할 수 있다. 근년에는 커피, 불고기, 영화, 스포츠 등 음식을 주제로 하는 캠핑장이 수두룩이 증가했다.

훈춘시 시장이며 훈춘해양경제시범구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립국은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성연으로서 이번 행사는 반드시 '아름다운 중국, 신선한 연변'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아름다운 명함이 될 것이라고 강조, 국내외 관광객들이 훈춘의 맛을 음미하고 아름다운 훈춘을 만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축제에 주최측은 해양문화전시구역, 해산물전시구역, 길림성무형문화재시장, 동북아미식구역, 왕홍미식구역을 설치하고 가장 아름다운 킹크랩 평의선발, 해산물 창의료리대회, 군중문화예공연, 하이편일렉트로닉 음악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 훈춘의 민족문화, 국경·변경 풍광과 특색 음식을 전면적으로 선보임으로써 문화관광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 김영화기자

2024년 훈춘킹크랩미식축제 성대히 개최



운봉은 축사에서 "이번 킹크랩미식축제는 음식문화를 심층적으로 개발하고 관광자원을 넓리 알리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여 훈춘, 연변, 길림성의 문화관광이 깊이 융합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생생한 활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나아

▶ 김영화기자

제 2회 연변캠핑관광축제 개막

21일,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라디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과 룽정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한 제 2회 연변캠핑관광축제가 룽정시양전백세운동 휴일풍경구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관광축제는 문화와 관광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고 연변만의 독특한 캠핑 브랜드를 강화하여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 공간, 체험을 만들어 연변의 캠핑, 레저, 휴양 분야의 고품질 성장을 이끌어가는 데 취지를 두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캠핑+'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여 문화관광산업과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달고 있다.

축제 현장은 캠핑장비 전시, 민속문화 체험, 야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관광객들에게 '캠핑+' 형태의 새롭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했다.

이 밖에도 축제 현장에서는 꽃불

놀이, 문화공연, 게임, 드론쇼, 캠핑장비 전시, 캠핑 인플루언서 추천, 커피문화와 민속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지면서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축제는 민속풍성을 느끼고 음악축제를 즐기며 지역 특색 음식을 맛보는 등 다양하고도 개성 있는 '캠핑+'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와 기업들이 교류, 공유, 협력의 플랫폼을 제공하여 문화관광산업과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달고 있다.

주문화라디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 따르면 연변에서는 94 가지 문화관광축제를 준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 속에서 가을 캠핑을 즐기고 연변에서 새로운 레저여행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영화기자

려행수기

황혼의 려행이 남긴 추억 (2)

– 항주 서호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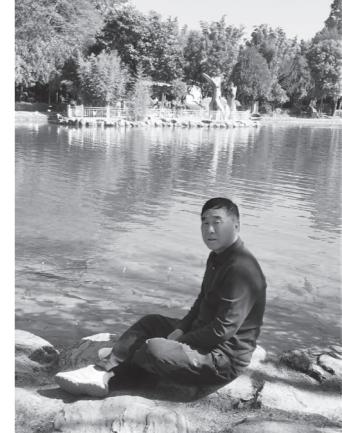
◎ 태승호

(지난기 계속)

단교를 떠나 계속 앞으로 1키로메터 쯤 걸어가니 물속에 잠긴 듯한 단층집이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 처마밑에 걸려있는 '평호주월(平湖秋月)'이라는 편액이 한눈에 안겨왔다. '평호주월'이라는 이름은 호수면이 거울처럼 평온하고 휘영청 밝은 가을달이 하늘에 떠있어 달빛과 호수가 서로를 느끼는 것만 같아 북받치는 흥분을 좀처럼 가라앉힐 수 없었다. 한가로운 발걸음으로 주위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끝머리까지 도착하니 이미 오후 세시가 되었다.

정자 옆에는 키 큰 오동나무 몇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미꽃이 불어오자 호수면은 해빛에 반사되어 하얀 고기비늘같은 물결이 반짝이고 저 멀리 바라보니 작은 배 몇 척이 한가롭게 '산책'을 하고 있었다. 작은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이리저리 해염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먹이를 주니 우르르 몰려가 다투어 먹이를 먹는다. 몇마리의 강자들만이 배불리 먹은 듯 느릿느릿 해염치며 자리를 뜯는다.

12시가 가까워 오자 우리는 근처에 위치한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끝내고 호수 가에 있는 정자에 앉아서 잠간 휴식을 취한 다음 호수를 따라 계곡 앞으로 걸어서 유명한 소제(苏堤) 어구에 이르렀다.



소제는 북송시

기(1089년) 시인 소식(소동파)이 항주 지주(知州-지금의 시당위 서기)에 해당함으로서 진흙을 이용하여 구축하고 후세 사람들의 개조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서 항주인민들은 소동파가 서호를 다스린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소식의 이름을 불여서 '소제(소식의 제방뚝)'라고 명명하였다. 소제의 종 길이는 2.8km로 메터이고 너비는 약 30m로서 남북으로 연결하는 인공제방이다.

소제를 따라 천천히 걷노라면 호수에서 관광객들을 실은 유람선 10여 척이 물결을 헤아르며 여유롭게 떠나는 것이 보인다. 저 멀리 바라보니 우뚝 솟은 료봉탑과 보탑은 해빛에 황금색 빛이 뿐어져나와 신비롭고 신성한 기운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치 두 수호신이 아름다운 호수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길옆의 화단에는 붉은색, 노란색, 자주색 등 꽃들이 마치 서로

운 유화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번 유람길은 60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었으니 기쁜 심정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었다. 시간상의 원인으로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서호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문화적 함의를 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서호, 그리고 서호의 산과 나무, 아름다운 꽃들은 모두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이며 아름다운 추억은 내 인생에 귀중한 재산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중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후회없는 황혼의 삶을 보낼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가. 세월은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노화되고 행동도 불편해진다. 이는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추세이다. 그러므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세상 구경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끝)